

예술 고등학교 음악전공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은모** · 신종호*** · 최효식**** · 최예은 · 이주연*****

본 연구는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예비 음악창의인재들이 지각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도 지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98명의 음악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들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Cochran의 Q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인요인(학업적 자기개념, 개인적 특성), 학교요인(물리적 지원, 교사 및 교우관계, 실기 및 필기 성적), 가족요인(가정환경) 등의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학교요인의 교우관계와 실기 및 필기 성적 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그리고 실기 성적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 음악전문가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학교환경, 그리고 가정환경을 밝힘으로써 음악교육에서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학교생활만족도, 음악교육,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2. 학교생활만족도 요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 1.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귀인요인
 - 2.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 간 차이 비교
 - 3.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 차이 비교
- V. 결론 및 논의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007)

** 서울대학교 학습창의센터 전임연구원/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hyosikchoi@songwon.ac.kr)/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I. 서론

학교는 학령기 학생들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학생들 대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이에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은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인이 갖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정의되는 학교생활만족도(Huebner, 1994)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안녕감(Pekrun et al., 2006) 등의 청소년기 삶의 질 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이 높은 학업성취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이봉주, 김광혁, 2008; Boesel, 2001; Hallinan, 2008).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학교생활만족도는 내재적인 학습동기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Ainley et al., 2005).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다양한 활동 및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과 노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Pekrun, 1992; Pekrun et al., 2002; 2006)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등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또한,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Do & Schallert, 2004),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정의적인 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듯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만족하는 것이 학습자의 노력과 학업성취,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경험 과학적 연구들과 달리 최근 통계청(통계청, 2014)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만족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반영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학업에만 매진하는 학생들보다 학업과 학업 외 목표를 추구하며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다 많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계 전공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성화된 미래인재를 배출하고자 특성화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지원자가 줄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배상훈 외,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정섭, 2011).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아지면 출석률이 높아지는 등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맞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 전공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있어 학업 고성취와 저성취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봄으로써 미래인재로써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정보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1.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요인들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1-2.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요인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주요 요인들에 있어 학업 고성취와 저성취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는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업에 대한 동기 및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구인으로 (Boesel, 2001; Hallinan, 2008; Ladd et al., 2000), 학교에서의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며 자신의 성취에 보람을 느끼는 학생은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수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인다(신중호 외, 2011; Cohen & Pressman, 2006; Long et al., 2012; Lyubomirsky et al., 2005). 반면, 학교에서의

일상이 지루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은 쉽게 우울감을 느끼고 과제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eser, 2001).

학교생활만족도는 물리적인 환경과 정의적인 환경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학교 내 물리적 환경은 학교운영 시설 및 교내외 안전과 규율, 징계와 능률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반면(Schneider & Stevenson, 1999), 정의적 환경은 학교 내 심리적 관계들을 주로 포함한다(김종백, 2012; Patrick et al., 2007).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자아 통제감과 자율성의 욕구가 발달하는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통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습에 흥미를 덜 느끼고 내재적 동기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Schreck et al., 2002), 교실환경, 교내 컴퓨터 이용 시설, 학교식당 등 학습을 위한 자원이 쾌적하고 풍부하며 적절한 규율로 자신의 자율적 행동과 의지가 존중될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보다 만족감을 느끼며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은식, 2007; Reeve & Jang, 2006).

또한, 교수방법적인 측면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교사의 적절한 도움과 열정 역시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진과 정재학(2011)이 수업 방식과 교사의 열정이 대학생들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수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인지적 노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홍식(2013)의 연구에서도 체육 교사의 열정적인 수업은 학생들의 체육 흥미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진호(2010)가 음악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수의 전문성과 열의는 교육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가 열정적일수록 학생의 동기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학교 내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물리적 환경보다 심리적 환경이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과 더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며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김종백, 2012; King et al., 2006; Patrick et al., 2007). 교사 및 동료와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는 학생의 동기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남희, 김종백, 2011; Flook et al., 2005; Patrick et al., 2007; Rosenfeld et al., 2000; Walsh et al., 2010)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유용하다(Zulling et al., 2009). 학교 내 교사 및 친구들

과의 원만한 관계는 급격한 신체와 내면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Akey, 2006; Baker, 1999; Danielsen et al., 2009; Hallinan, 2008; Ladd et al., 1999)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종백, 2012; Davis, 2003). Furrer과 Skinner(2003) 역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습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는 등 학습동기를 증진시켜 성취에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가령,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와의 관계와 더불어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학교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최수미, 김동일, 2012; Moody & White, 2003), 특히 청소년기에는 교사보다는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문은식, 2005; 통계청, 2010).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 내 폭력의 희생자 또는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쉽게 우울을 경험하며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많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여각 외, 2002; Schreck et al., 2002). 윤희옥과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 705명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관계 지지망과 소속감이 부족할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학교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내 물리적 및 정서적 환경과 더불어,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만족스러운 학업성취와 가정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배상훈 외, 2011; Baker, 1998; Baker & Maupin, 2009; Briones & Tabernero, 2012; Karatzias et al., 2002). 보다 구체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는 자신의 노력과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만족감을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Bandura, 1977; 1990). 또한, 높은 성취를 바탕으로 갖게 되는 자기효능감은 다음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며(유지원, 송윤희, 2013; Zimmerman, 2000), 과제에 대한 흥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Lent et al., 2008; Niemivirta & Tapola, 2007). Bandura와 Jourden의 연구(1991)에서도 성취 수준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도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정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자원을 지원받는 곳으로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안정을 느껴 학업에도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문계 및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가정 내 적절한 지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환, 김지혜, 2011; 이국화 외, 2011; Adams-Byers et al., 2004; Karatzias et al., 2002). 이는 학업 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주어진 일에 보다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생활만족도 요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지닌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어 해당 학교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배상훈 외, 2011; 신종호 외, 2011; Jin & Moon, 2006). 특히, 예술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일찍이 선택하고 오랜 기간 연습한 후 일련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보다 즐겁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안도희, 정재우, 2010; 주슬아,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지각한 환경의 물리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 개인 특성 및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만족도는 개인의 학업성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보이는 만족스러운 수행의 결과는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을 만족스러워하며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이봉주, 김광혁, 2008; Akey, 2006; Verkuyten & Thijs, 2002; Wang & Holcombe, 2010). 반면, 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 과업인 학업에서 만족할만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하지 못하며,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에도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Elmore & Huebner, 2010; Patrick et al., 2007; Wang & Holcombe, 201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298명

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성별 및 학교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56명(18.8%), 여학생 241명(80.9%), 무응답 1명(.3%)이며, 학년별 구성은 1학년 116명(38.7%), 2학년 183명(61.0%), 무응답 1명(.03%)이었다.

2. 측정도구

1)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탐색

본 연구에서는 학교만족도와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유반응절차(open-ended procedure)방법을 적용하였다(박영신, 1986; Weiner, 1983). 자유반응절차는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귀인요인의 탐색에 유용한 연구법으로 알려져 있다(신중호 외, 2004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는 교육학 박사 2명과 음악교육 전공 석사과정 2명이 각기 독립적으로 내용 분석 및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총 4회기에 거친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류 범주를 결정하였다.

2) 학업적 자기평가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학업적 자기평가 1문항(“본인의 지난(2013년) 2학기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을 활용하였다. 8점 척도(64점 이하~95점 이상)를 활용하였으며, 실제 학교생활통지서에 기재되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지난 학기 학업성취에 대한 자기보고는 실제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판단이지만, 성취에 대한 개인의 자기평가는 실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신중호 외, 2014; Försterling & Morgenstern, 2002).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만족도 귀인요인 간 빈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ochran의 Q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교만족도 귀인요인에 대한

빈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귀인요인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귀인요인은 크게 (1) 개인요인, (2) 학교요인, (3) 가족요인의 세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었다. 이들 세 요인들에 속하는 하위요인들은 (1) 개인요인으로는 내재적 동기, 노력, 자기효능감 등의 학업적 자기개념과 신체적 및 정의적 개인적 특성, (2) 학교요인으로는 물리적 지원, 교사 및 교우 관계, 필기 및 실기 성적, (3) 가족요인으로는 재정적 지원 등의 가정환경 요인들이었다. 이들 하위 요인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자기보고서 내용들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귀인요인의 유형화 결과

귀인유형	하위요인	학생 자기보고서 예시문
개인요인	학업적 자기개념	- 자신감, 나에 대한 믿음 - 열심히 하려는 의지 - 충분한 연습과 준비
	개인적 특성	- 차분한 성격 - 외모
학교요인	물리적 지원	- 제대로 된 건물(시설) - 교실 및 연습실의 청결여부
	교사관계	- 좋은 선생님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기 - 선생님들과의 친분도
	교우관계	-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 친구와 되도록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필기성적	- 대학갈 때 지장 없을 정도의 내신 - 우수한 성적
	실기성적	- 실기1등
		- 월등한 실기실력
가족요인	가정환경	- 레슨비, 등록금 걱정없는 것 -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가정환경

2.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 간 차이 비교

학교생활만족도 원인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귀인요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ochran의 Q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생활만족도 원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chran's $Q=391.77$ $p<.001$).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교우관계, 실기성적과 필기성적을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사관계, 물리적 지원, 개인의 특성, 가정배경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생활만족도 원인에 대한 귀인 빈도와 빈도 간 차이 비교

학교만족도 하위요인	학생수(%)	Cochran's Q
교우관계	195(26%)	391.77***
교사관계	40(5%)	
물리적 지원	59(8%)	
실기성적	156(20%)	
필기성적	139(18%)	
학업적 자기개념	89(12%)	
개인적 특성	70(9%)	
가정환경	16(2%)	

*** $p<.001$

3.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 차이 비교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교만족도 귀인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참가자의 학업적 자기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약 상위 30%를 학업적 자기평가 상집단, 약 하위 30%를 학업적 자기평가 하집단으로 정의하였다. χ^2 검정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단, 가정배경은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cell)이 전체 칸 수의 20% 이상으로 나와 χ^2 검정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평가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자신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교우관계($\chi^2=6.43$, $df=1$, $p<.05$), 교사관계($\chi^2=5.42$, $df=1$, $p<.05$), 실기성적($\chi^2=5.20$, $df=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다른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 수준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교우관계, 교사관계, 실기성적을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에 대한 χ^2 검정 결과

구분		성취 (하)	성취 (상)	$\chi^2(df)$
교우관계	귀인하지 않음	33(46.5%)	21(26.6%)	6.43(1)*
	귀인함	38(53.5%)	58(73.4%)	
교사관계	귀인하지 않음	66(93.0%)	63(79.7%)	5.42(1)*
	귀인함	5(7.0%)	16(20.3%)	
물리적 지원	귀인하지 않음	54(76.1%)	60(75.9%)	.00(1)
	귀인함	17(23.9%)	19(24.1%)	
실기성적	귀인하지 않음	42(59.2%)	32(40.5%)	5.20(1)*
	귀인함	29(40.8%)	47(59.5%)	
필기성적	귀인하지 않음	45(63.4%)	40(50.6%)	2.47(1)
	귀인함	26(36.6%)	39(49.4%)	
학업적 자기개념	귀인하지 않음	53(74.6%)	61(77.2%)	.14(1)
	귀인함	18(25.4%)	18(22.8%)	
개인의 특성	귀인하지 않음	52(73.2%)	58(73.4%)	.00(1)
	귀인함	19(26.8%)	21(26.6%)	
가정배경	귀인하지 않음	63(88.7%)	78(98.7%)	N/A
	귀인함	8(11.3%)	1(1.3%)	

* $p<.05$

V. 결론 및 논의

학교 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교사 및 교우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가지는 것은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두환, 김지혜, 2011; 김현진, 정재학, 2011; Ainley et al., 2005; Pekrun et al., 2002;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족스러

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개인의 지각에 있어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학업에만 집중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양적 차이를 밝히고자 한 반면, 본 연구는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학업 외 목표를 가지고 보다 많은 과업을 수행하는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방법을 사용해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요인들은 크게 가족요인(가정의 물리적 지원), 학교요인(학교의 물리적 지원, 교사 및 교우 관계, 성적(필기, 실기), 개인요인(학업적 자기개념, 개인적 특성) 등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전체 응답자의 26%)와 실기 및 필기 성적(전체 응답자의 각 20%, 18%) 등의 학교요인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하게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문은식, 2002; 황여정, 김경근, 2006; King et al., 2006; Patrick et al., 2007)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Whitley et al., 2012)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세에서 12세 사이의 네덜란드와 소수 인종 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한 Verkuyten과 Thijs(2002)의 연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음을 보고하는 등 또래와의 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관계성과 유능성의 욕구가 충족될 때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가 신장된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학업수월성을 확인하는 것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만들고 학업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Appleton et al., 2006; Verkuyten & Thijs, 2002). 이에 기초했을 때,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필요한 요인으로 원만한 사회적 관계와 좋은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과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신이 만족할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과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예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같은 꿈을 가진 학교 친구들과 공유하는 관심사가 같아 동질성을 더 높게 인식하게 된다(이소연, 2009; 주슬아, 2014).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공부하는 친구들 간의 관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 전공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함을 보고하고 있으며, 신종호 외(2011)의 연구에서도 555명을 대상으로 학교소속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해서 확인한 결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특히 학교 구성원들 간의 결속감은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교사와의 관계는 전체 응답자의 약 5%만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교사보다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느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문은식, 2005; Bokhorst et al., 2010; Helsen et al., 2000), 특히 예술이나 체육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목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공 담당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Sloboda & Howe, 1991)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청소년기 발달선상에 있는 만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관련 변인으로서 교사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예술 고등학교에서의 교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실패는 수행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유발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Margolis & McCabe, 2006) 수행의 질을 낮추지만(Brown & Dutton, 1995; Kofta & Sadek, 1989; Spieker & Hinsz, 2004), 자신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에 대한 지각은 동기를 촉진시켜 학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지원, 강명희, 2011; 정은이, 2012; Zimmerman, 2000).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실기와 필기 성적 모두 자신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필기 성적보다 실기 성적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교육과정개편과 맞물

려 대학입시에서 실기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조현진, 2009; 한정섭, 2011). 실제 음악 전공에서 입학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실기 성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콩쿠르나 경연대회를 통해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익숙해진 음악 전공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꿈과 직결되는 전공 영역에서의 유능감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학교생활을 만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양적 연구들은 유능감을 학교생활에 만족하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 다루기보다는 학교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김두환, 김지혜, 2011; 이봉주, 김광혁, 2008; 조명희 외, 2013; Boesel, 2001; Ladd et al., 2000; Verkuyten & Thijs,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인의 유능감은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행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에 만족하기 위해 성취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준의 과업을 제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성취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 지각에 있어 교우관계, 교사관계, 실기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교우관계, 교사관계, 실기성적을 학교생활만족도 귀인요인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취 학생들이 보이는 학업적 수월성은 개인의 유능감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학업에 대한 긍정적 자기개념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되며,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ishi et al., 2007). 따라서 이와 같이 학업수월성과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한 고성취 집단이 저성취 집단보다 실기성적,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더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 전공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만한 교우관계와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성취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전공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 폭넓게 탐색하고, 특히 학교생활만족도의 결과물로서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이 아니라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변인으로 주어진

과업에 대한 성취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술적 재능을 계발시키고 전문 연주자 양성 목적을 위해 설립된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는 음악 전공학생들의 요구 역시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역시 특수한 재능 계발을 위한데 목적을 두기 보다 보다 인간 발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노력뿐 아니라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Pekrun, 1992; Pekrun et al., 2002; Whitley et al., 2012). 예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 전공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한 본 연구 결과는 이들이 미래 연주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탐색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연구의 확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2개의 예술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 수 확보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고성취 학생들과 저성취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위한 귀인 특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을 통해 양적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일반 고등학교에서와 달리 예술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은 학업적으로만 뒤쳐질 뿐이지 뛰어난 연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은 꼭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예술 고등학교 음악전공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상의 음악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나 음악과 관련된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탐색하는 미시적 접근을 한다면 음악전공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생활만족도가 일시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단적 접근을 통해 학교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면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남희, 김종백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에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에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763-789.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종백 (2012). 학생-교사관계와 학생의 심리적 탄력성. **교육심리연구**, 26(2), 523-541.
- 김현진, 정재학 (2011). 지각된 교수자 특성과 대학생들의 학업적 흥미, 즐거움, 내재동기, 인지적 학습전략 사용 및 과목만족도의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5(3), 569-589.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연구논총**, 23(1), 153-167.
- 문은식 (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문은식 (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1(2), 459-475.
- 박영신 (1986). 인지발달수준에 따른 성패귀인과 과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24(2), 77-94.
- 배상훈, 김효선, 김국균 (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가정배경 및 정서적·학습심리적 특징 분석: 전문계 및 일반계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9(3), 149-175.
- 신종호, 신태섭, 권희경 (2004). 학업수월성에 대한 귀인유형의 탐색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8(4), 261-277.
- 신종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 (2011).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2014). 학교목표구조, 개인목표성향 및 학업적 자기평가가 학습자의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1), 225-249.
- 안도희, 정재우 (2010). 음악재능 청소년의 계획적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정과 성취 목적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3), 947-966.
- 유지원, 강명희 (2011). 대학생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심리적

- 욕구 요인, 동기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49(4), 55-85.
- 유지원, 송윤희 (2013). 이러닝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 및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91-112.
- 윤여각, 박창남, 전변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희옥, 이지연, 이인숙 (2010). 여고생의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1(2), 525-538.
- 이국화, 류점숙, 이선정, 신호식 (201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 **생활과학연구**, 21, 95-102.
- 이봉주, 김광혁 (2008).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적도 오를까? -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4), 287-306.
- 이소연 (2009).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은이 (2012). 대학생의 수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교육방법연구**, 24(2), 35-378.
- 조명희, 이혜연, 이현우 (2013). 고교생의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6(2), 91-112.
- 조현진 (2009). 최근 10년간 국내외 음악대학 바이올린 입시 곡 및 입시제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흥식 (2013). 체육교사의 교수열정과 학생들의 교과 흥미도 및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 115-134.
- 주슬아 (2014).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자의 만족도 관계: 무용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 중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최수미, 김동일 (2012). 사회적 기술, 따돌림 피해경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인과적 모형 탐색. **상담학연구**, 13(1), 135-148.
- 최진호 (2010).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음악교육연구**, 38, 149-171.
- 통계청 (2010). 2010 청소년 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14). 2014 청소년 통계.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2010). 간추린 교육통계 2010.
- 한정섭 (2011).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정부(지자체)와 대학 협력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여정, 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 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2), 181-203.
- Adams-Byers, J., Whitsell, S. S., & Moon, S. M. (2004). Gifted students' perceptions of the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effects of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grouping. *Gifted Child Quarterly*, 48(1), 7-20.
- Ainley, M., Corrigan, M., & Richardson, N. (2005). Students, tasks and emotions: Identifying the contribution of emotions to students' reading of popular culture and popular science texts. *Learning and Instruction*, 15(5), 433-447.
- Akey, T. M. (2006). *School context, student attitudes and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An exploratory analysis*. New York: MDRC.
- Appleton, J. J., Christenson, S. L., Kim, D., & Reschly, A. L. (2006). Measuring cognitive and psychological engagement: Validation of the student engagement instru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5), 427-445.
- Baker, J. A. (1998). The social context of school satisfaction among urban, low-income, African-American stud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3(1), 25-44.
- Baker, J. A. (1999). Teacher-student interaction in urban at-risk classroom: Differential behavior, relationship quality, and student satisfaction with school.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1), 57-70.
- Baker, J. A., & Maupin, A. N. (2009). School satisfaction and children's positive school adjustment. In R. Gilman, E. S. Huebn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pp. 189-196). New York: Routledge.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0). *Multidimensional scales of perceived self-effic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 Bandura, A., & Jourden, F. J. (1991). Self-regulatory mechanism governing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941-951.
- Boesel, D. (2001). *Student attitudes toward high school and educational expect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eattle, WA, April 10-14, 2001).
- Bokhorst, C. L., Sumter, S. R., & Westenberg, P. M. (201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friends, classmates, and teach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9 to 18 years: Who is perceived as most supportive?. *Social Development*, 19(2), 417-426.
- Briones, E., & Tabernero, C. (2012). Social cognitive and demographic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intrinsic satisfaction with 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5(2), 219-232.
- Brown, J. D., & Dutton, K. A. (1995). The thrill of victory, the complexity of defeat: Self-esteem and people's emotional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712-722.
- Cohen, S., & Pressman, S. D. (2006). Positive affect and heal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3), 122-125.
- Danielsen, A. G., Samdal, O., Hetland, J., & Wold, B.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20.
- Davis, H. A. (2003).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8(4), 207-234.
- Do, S. L., & Schallert, D. L. (2004). Emotions and classroom talk: Toward a model of the role of affect in students' experiences of classroom discuss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619-634.
- Elmore, G. M., & Huebner, E. S. (2010).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experiences: Relationships with demographics,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school engagement behavior. *Psychology in the Schools*, 47(6), 525-537.
- Flook, L., Repetti, R. L., & Ullman, J. B. (2005). Classroom social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1(2), 319-327.
- Försterling, F., & Morgenstern, M. (2002). Accuracy of self-assessment and task performance: Does it pay to know the trut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3), 576-585.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Hallinan, M. T. (2008). Teacher influences on students' attachment to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81(3), 271-283.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319-335.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Jin, S. U., & Moon, S. M. (2006). A study of well-being and school satisfaction among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attending a science high school in Korea. *Gifted Child Quarterly*, 50(2), 169-184.
- Karatzias, A., Power, K. G., Flemming, J., Lennan, F., & Swanson, V. (2002). The role of demographics, personality variables and school stress on predicting school satisfaction/dissatisfaction: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search findings. *Educational Psychology*, 22(1), 33-50.
- King, A. L. D., Huebner, S., Suldo, S. M., & Valois, R. F. (2006). An ecological view of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Linkag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4), 279-295.
- Kofta, M., & Sedek, G. (1989). Repeated failure: A source of helplessness or a factor irrelevant to its emerg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8(1), 3-12.
- Ladd, G. W., Birch, S. H., & Buhs, E. S. (1999).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0(6), 1373-1400.
- Ladd, G. W., Buhs, E. S., & Seid, M. (2000). Children's initial sentiments about kindergarten: Is school liking an antecedent of early classroom participation and achiev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6(2), 255-279.

- Lent, R. W., Sheu, H. B., Singley, D., Schmidt, J. A., Schmidt, L. C., & Gloster, C. S. (2008). Longitudinal relations of self-efficacy to outcome expectations, interests, and major choice goals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2), 328-335.
- Long, R. F., Huebner, E. S., Wedell, D. H., & Hills, K. J. (2012). Measuring school related subjective well being i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2(1), 50-60.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argolis, H., & McCabe, P. P. (2006). Improving self-efficacy and motivation what to do, what to say.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1(4), 218-227.
- Moody, J., & White, D. R. (2003). Structural cohesion and embeddedness: A hierarchical concept of social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1), 103-127.
- Niemivirta, M., & Tapola, A. (2007). Self-efficacy, interest, and task performance. *Zeitschrift für Pädagogische Psychologie*, 21(3), 241-250.
- Oishi, S., Lun, J., & Sherman, G. D. (2007). Residential mobility, self-concept, and positive affect in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1), 131-141.
- Patrick, H., Ryan, A. M., & Kaplan, A. (2007).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motivational beliefs, and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83-98.
- Pekrun, R. (1992). The impact of emotions on learning and achievement: Towards a theory of cognitive/motivational mediators. *Applied Psychology*, 41(4), 359-376.
- Pekrun, R., Elliot, A. J., & Maier, M. A. (2006). Achievement goals and discrete achievement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and prospective tes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83-597.
- Pekrun, R., Goetz, T., Titz, W., & Perry, R. P. (2002). Positive emotions in education. In E. Frydenberg (Ed.), *Beyond coping: Meeting goals*,

- visions, and challenges* (pp. 149-1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eeve, J., & Jang, H. (2006). What teachers say and do to support students' autonomy during a learning ac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1), 209-218.
- Roeser, R. W. (2001). To cultivate the positive: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schooling and mental health issu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2), 99-110.
- Rosenfeld, L. B., Richman, J. M., & Bowen, G. L. (2000). Social support networks and school outcomes: The centrality of the teache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7(3), 205-226.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chneider, B. L., & Stevenson, D. (1999). *The ambitious generation: America's teenagers, motivated but directionl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hreck, C. J., Wright, R. A., & Miller, J. M. (2002). A study of individual and situational antecedents of violent victimization. *Justice Quarterly*, 19(1), 159-178.
- Sloboda, J. A., & Howe, M. J. (1991). Biographical precursors of musical excellence: An interview study. *Psychology of Music*, 19(1), 3-21.
- Spieker, C. J., & Hinsz, V. B. (2004). Repeated success and failure influences on self-efficacy and personal goal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2(2), 191-198.
- Verkuyten, M., & Thijs, J. (2002).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2), 203-228.
- Walsh, S. D., Harel-Fisch, Y., & Fogel-Grinvald, H. (2010). Parents, teachers and peer relations as predictors of risk behaviors and mental well-being among immigrant and Israeli born adolescents. *Social Science & Medicine*, 70(7), 976-984.

- Wang, M. T., & Holcombe, R. (2010). Adolescents' perceptions of school environment,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7(3), 633-662.
- Weiner, B. (1983). Some methodological pitfalls in attribution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4), 530-543.
- Whitley, A. M., Huebner, E. S., Hills, K. J., & Valois, R. F. (2012). Can students be too happy in school? The optimal level of school satisfaction.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7(4), 337-350.
- Zimmerman, B. J. (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82-91.
- Zulling, K. J., Koopman, T. M., & Huebner, E. S. (2009). Beyond GPA: Toward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s of students' school experiences. *Child Indicators Research*, 2(1), 95-108.

ABSTRACT

Needs for School Satisfaction on Music Major High School Students

Eun-Mo Yeon · Jong-Ho Shin · Hyo-Sik Choi
Ye-Eun Choi · Joo-Ye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usic major students' needs for school satisfaction and their different attributions for school satisfaction regarding academic achievement. 298 music majored students at two different art highschool were asked to write for their needs to be satisfied at school, then frequency and Cochran's Q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se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needs and attributions for school satisfaction can be categorized in three factors (1) individual (person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al self-concept), (2) school (social relationships with teacher and peers, learning environments, and achievements (practical music, academic), and (3) family (SES including financial supports). Especially, students'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both music practical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identified as most important perceived needs for school satisfaction. In addition, high achieving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demand social relationships with teacher and peers and both music practical and academic achievement to be satisfied at school. Results suggest that to have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and to demonstrate own ability are significant determinant of school satisfac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in terms of the basic needs for developing an excellence program for the music majored students are discussed in detail.

Key words : school satisfaction, music education, academic achievement, social relationships

투고일: 2014년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20일(10월 29일), 게재확정일: 11월 20일